

# 여성 결혼이민자의 구어 자유 담화 분석\*

## -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중심으로

김 선 정 · 강 현 자  
(계명대학교)

###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구어 자유 담화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담화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일반 한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복잡한 사회 망 속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므로 어느 한국어 학습자 집단보다도 독특한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와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선정(2006)의 「대구경북연구원 RHRD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으로 ‘한국말을 몰라서’라고 대답함으로써 의사소통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됨을 알 수 있다. 박영순(2007, pp. 13-15)은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 한국 사회와의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허용(2009)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만큼

나 한국어와 모국어를 섞어서, 혹은 제3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sup>1)</sup>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자유 발화를 분석하여 이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발화 분석에 관한 연구는 왕한석(2007)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인류학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이 아닌 계획되고 통제된 면접을 통한 한국어 사용 양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sup>2)</sup> 이에 본 연구는 연구자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된 자연스러운 담화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담화분석의 정의

Brown(2007, p. 51)에 의하면 담화(discourse)야말로 제2언어 학습자들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벽이다. 굳이 Brown의 진술에 기대지 않더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담화는 발음이나 어휘, 문법처럼 암기와 연습을 통해 숙달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외국어를 배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00928).

- 1) 허용(2009, p. 32)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53%이며, 한국어와 모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29%,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어 등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13%라고 밝혔다.
- 2) 왕한석(2007, p. 27)은 이 연구가 짧은 어휘적 지식에 관한 질문과 특정한 상황 또는 장면에서 해당 연구 대상자가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하도록 유도하고 또 특정한 화제(topic)나 자극(stimulus)에 대해 담화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며, 연구자와의 면접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언어 사용 능력이 자연스럽게 수행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담화가 특히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외국어 학습·교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관심이 되면서부터이다. 담화 능력 개발이 곧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담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는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자들마다 담화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담화에 관한 첫 번째 정의는 그 단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화분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담화의 정의는 Harris(1951)에 의해 가장 먼저 내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Harris는 담화를 형태소(morpheme), 절(clause), 그리고 문장(sentence)의 단계적 위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송경숙, 2002, p. 17). 국내 학자들 중 장석진(1985, p. 15)은 담화를 문장보다 큰 단위로 정의하고 담화문은 발화문의 상위에 있는 추상적인 문으로 보고 있다.<sup>3)</sup> 박영순(1994, p. 202)은 담화는 의미 전달이나 의미 분석의 단위로 문장보다 큰 단위이며 문장의미론의 한계점을 해결해 주는 언어 단위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담화는 문장보다 큰 언어 단위라는 데에서 학자들이 대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담화의 정의 중 두 번째는 형식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텍스트와의 경계 구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Stubbs(1993, p. 26)는 문자언어 대 음성 언어, 비상호적 독백 대 상호작용적 담화를 구별함으로써 담화의 형식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Widdowson(1979)은 ‘어휘, 문법, 명제’의 전개에서 텍스트가 형식상의 결속성(textual cohesion)을 가지고 있다면 담화는 의미상의 결속성(discourse cohesion)을 가진 것으로 보고, Van Dijk(1977)은 텍스트를 ‘담화 속에서 구체화되는 추상적 이론의 구조물’로 보고 있다. Lyons(1977, pp. 385-387)는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을 ‘시스템-문장(system-sentence)’과 ‘텍스트-문장(text-sentence)’으로 나누고 시스템-문장을 문법에 의해 생성된

3) “발화문의 상위에 있는 추상적인 문”이라는 장석진의 정의는 담화가 개별 문장이 아닌 그 개별 문장이 모여 구성하는 의미 체계의 단위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구성된 일련의 묶음으로, 텍스트-문장은 맥락-의존적 발화 신호 체계 또는 발화 신호 체계의 구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담화는 텍스트-문장으로 구성된 단위’라고 정의한다(송경숙, 2002, p. 18). 한편 박영순(2008, p. 17)은 담화를 ‘화자·청자가 한 가지 화제, 사건, 주제에 대하여 교환하는 언어단위, 혹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결속성(bindingness, cohesion), 응집성(semantic coherence), 의미성(meaningness)을 가진 언어단위’로 정의한다.

담화에 관한 세 번째 정의는 기능에 관한 것이다. Schiffrin(1994, pp. 31-39)은 담화를 “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강조(a particular focus in language use)”로 정의한다. “담화는 발화(discourse is utterances)”라는 Schiffrin의 주장은 담화를 맥락이 결여된 언어구조의 단위들의 집합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맥락화된(contextualized) 단위들로 보는 견해이다.<sup>4)</sup> 또한 Fasold(1990, p. 65)는 담화 연구를 언어 사용의 모든 측면에 관한 연구로 보고 있으며 Brown, Yule(1983)은 담화분석은 그 용도와 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기술될 수 없는 사용상의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아 담화는 일정한 목적과 기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의미로 ‘담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즉, 담화란 문장 단위를 초과하여 실현되며, 내적으로 일련의 의미적 연결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추상적인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2.2 담화분석의 내용과 접근 방법

앞서 살펴본 담화의 정의를 통하여 담화분석의 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담화를 화자와 청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구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기호로 전달하

4) 박영순(2008, p. 16)은 Schiffrin(1994)의 이와 같은 견해가 담화를 구어로 본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고, 청자는 그것을 수신하여 해독하고 이해하며, 반응하게 된다. 이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자 언어 혹은 음성 언어로 구분될 것이며 여기에는 보다 복잡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담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의 ‘의미 맥락’을 밝히는 것이다.

Stubbs(1993, p. 15)는 담화분석의 의미를 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에 의한 담화의 언어학적 분석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는 담화분석의 연구 내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문장(sentence)이나 절(clause) 경계 이상의 언어 구조, 즉 일련의 회화 또는 문자화된 텍스트와 같은 더욱 큰 언어 단위를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 사회적 문맥에서의 언어 사용, 특히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다루는 것이다.

Renkema(2002, p. 13)는 담화분석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의 내리고 있다. 그는 담화분석을 형태와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보고 ‘도구로서의 말(language as instrument)’을 지배하는 원칙들과 언어가 사용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책략들, 즉 협력의 원칙과 공손성의 원칙, 그리고 화행이 담화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담화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은 무엇인지, 화제에 대한 정보 단위들의 구성과 담화의 연결 관계, 그리고 담화의 유형별로 상호작용의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Schffrin(1994, p. 41)은 담화분석의 목적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통사적 목적으로 하나의 발화 다음에 다른 발화가 뒤따르는 순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의미론적·화용론적 목적으로 담화 구조와 특정 맥락 속에서 특정 ‘표현과 구조’의 ‘의미와 사용’이 어떻게 의사소통적 내용을 전달하고 해석하게 하며, 셋째는 하나의 발화와 발화들 간의 연속적 관계가 서로의 의사소통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한편, 담화분석은 텍스트 언어학이나 심리학, 사회언어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Schffrin(1994)은 담화분석에 대한 접근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화행론, 화용론, 대화분석, 변이분석,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그리고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등의 접근방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화용론에서는 언

어 기호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화행론을 통해 하나의 발화가 하나 이상의 언어 행위(speech act)를 행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대화분석에서 언어가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고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것들을 말하는 다른 대안이나 택일적 방법들의 유형을 알아보는 변이분석, 문화와 사회 그리고 언어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을 문화적 지식과 행위로 분석하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을 대화분석에 대한 접근법에 포함시킨다(송경숙, 2002, pp. 21-34).

Stubbs(1993)는 대화분석의 연구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상이 대화표지와 대화 구조와 적격성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담화의 개시 발화와 응답 유형, 발화 교환 구조의 분석, 행위로서의 발화, 담화에서의 간접성의 문제, 텍스트의 명제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등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Johnston(2002, p. 27)은 대화분석은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언어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의문에 해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고 인문사회학의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대화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영순(2008, pp. 54-61)은 위와 같은 견해와 달리, 대화분석의 내용을 언어학적 측면과 언어사용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언어의 구조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화표지의 결속장치와 음운·형태, 내용, 의미를 포함시켰다. 또한 언어사용적 측면에는 사회언어학적 구성요소와 화용론의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이 글은 박영순의 분류 중 언어사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사회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이란 한원덕(2002, p. 205)에 의하면 사회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과 이와 함께 수반되는 올바른 발화와 이해이다. 이는 대화공동체가 공유하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료들 간에는 격의 없이 담소를 나누다가도 상급자 앞에서는 절제하는 언어 예절부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능력(말더듬기, 긴장된 어조, 불안한 표정, 문장 구조의 파괴)까지 포함한다. 한원덕(2002)은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측정 기준으로 다양한 방언에

적응하는 능력, 담화 분야나 화법에 적응하는 능력, 맥락에 적절한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과 문화와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을 꼽았다. Canale과 Swain(1980)에 의하면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언어와 담화의 사회 문화적 규칙에 대한 지식으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며 서로 다른 표현 기능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문법 형태를 발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글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잡한 사회 망을 형성하므로 어느 한국어 학습자 집단보다도 독특한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3.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구어 담화 자료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 구어 자유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이에 나타는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사소통 참여자의 상호작용 과정은 구어 담화를 통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어적인 것이든 비언어적인 것이든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곧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둘째,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실제 담화를 통하여 진단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만 밝혀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발화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담화 분석을 통한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정(2007, p. 430)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기’ 위한 말하기 기능이며, 말하기는 담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이들의 담화를 분석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발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을 녹음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자연스러운 경로와 비공식 교육을 통한 ‘습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비슷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과 한국어 사용 양상이 다르며 유사한 경로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였다고 해도 처한 환경이나 성격 등의 학습자 변인에 따라 습득 속도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인 이들로 제한하였다. 이주 초기의 학습자들의 경우 아직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발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하면 다양한 담화 상황을 접할 수 있는 학습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가능하면 시부모와 함께 동거하여 3대가 같이 사는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중국 출신과, 베트남 출신, 필리핀 출신의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기본 정보이다.

〈표 1〉 연구 대상자 기본 정보

	출신국	나이	한국거주기간	가족 상황	거주지
CK1	중국	31	3년	시부모, 남편, 자녀1	성주
CK2	중국	35	11년	남편, 자녀2	안동
PK1	필리핀	35	12년	남편, 자녀2	안동
VK1	베트남	22	3년	남편, 자녀1	고령
VK2	베트남	28	5년	시부모, 남편, 자녀2	고령

피험자들은 각자 MP3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녹음하였다.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을 스스로 녹음하여 인위적인 상황이 배제된 담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녹음 자료는 wave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전사하였다. Tannen(1984), Schiffrin(1987)의 전사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되 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몇 가지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전사 기호는 다음과 같다(송경숙, 2002, p. 44).

〈표 2〉 전사법 및 기호

전사기호	내용	예시
..	짧은 휴지	운전 조심..하고 들어오세요
!/?	전사 불가능	!/?/나랑 동진 엄마랑
[ ]	말투나 상황에 대한 설명	아이구, 예쁘네[웃음]
:	말 끊어짐	안 걱정:
=	말끝흐림	밀대 같은 거=
( .... )	긴 휴지 혹은 전화 통화에서의 침묵	네, 엄마 저녁은요? 먹어요? ( .... ) 왜요?
××	실명	××이, 뭐 해?
CK1	중국 출신 연구 대상자1	
CK2	중국 출신 연구 대상자2	
PK1	필리핀 출신 연구 대상자1	
VK1	베트남 출신 연구 대상자1	
VK2	베트남 출신 연구 대상자2	

전사된 자료는 ‘담화 자료’를 분석하고 ‘담화 전략’에 대한 해석적 분석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연구 참여자들에게 플레이백(Playback)<sup>5)</sup>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발화 의도나 이유 등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한 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5) 플레이백(playback)이란 담화분석에서 대화 분석과 전략 분석을 한 다음, 해석을 검증하고 다른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이거나 제3자를 대상으로 담화 과정에 일어난 일을 질문함으로써 담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송경숙, 2003, p. 36).

## 4. 사회언어학적 특징

### 4.1 호칭의 사용

한국어의 호칭은 다른 언어 요소에 비해 그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호칭 체계가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볼 때 한국 사회는 수평적 구조라기보다는 수직적 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인구어에서의 호칭에 관한 연구는 Brown, Gilman(1960), Brown, Ford (1964)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영어에서 호칭 사용을 결정하는 기준을 ‘힘(power)’과 ‘유대감(solidarity)’으로 보았다.

Hwang(1990)은 Ervin-Tripp(1972, p. 226)의 미국 영어의 호칭 구조의 수형도에 기초하여 한국어 호칭의 선택 기준을 수형도로 나타내었다. Hwang의 연구에서는 Ervin-Tripp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 항목과 호칭이 등장한다. 한국어에서는 이름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위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3살 이상 연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자가 여성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자가 여성이라면 기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자의 남편이 고위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자가 성인인 경우와 청소년인 경우 등 여러 선택 항목을 거쳐 약 20개의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게 된다.

강현자(2005)는 Hwang(1990)의 복잡한 선택 기준을 단순화시켜 한국어 호칭의 결정 기준은 청자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성별, 청자의 신상 정보, 대

6) 이익섭, 이상연, 채완(1997)은 인칭대명사만 놓고도 모두 6개의 등급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자 신분	경어등급	대명사
상위	가장 높임	어르신(귀하, 각하, 귀택)
동위	많이 높임	댁
하위	보통 높임	당신
	조금 높임	자네
	조금 낮춤	(자기)
	보통 낮춤	너

화 상황이라고 보고 인구어의 기준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사회 구조라고 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호칭 사용 기준도 한국어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호칭 사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한국어의 기준보다는 인구어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유대감이 호칭 선택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자녀 혹은 남편, 이웃에 대한 호칭은 한국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는 ‘오빠, ×× 아빠, 여보, 자기야, 신랑야’ 등이 사용되었고, 자녀에 대한 호칭으로는 이름과 ‘우리 아들/딸’, ‘왕자님’ 등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사뭇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의 담화에서 ‘엄마’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라는 호칭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담화 자료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5명 중 2명의 담화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이 ‘엄마’로 나타났으며<sup>7)</sup>, 사용 빈도도 잦았다. 이는 많은 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 집단인 한국인 주부들의 발화 자료에서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8)</sup>

## 4.2 존대어의 사용

한국어의 경어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경어법과 객체 경어법, 상대 경어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체 경어법과 객체 경어법은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대 경어법은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어법이다. 주체 경어법은 선어말어미 ‘-시-’와 어휘적 높임말에 의해 구분되고 객체경어법은 조사 ‘께’나 ‘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

7) 시어버지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시어머지에 대한 호칭 사용 방식은 알 수 없었지만 연구 대상자 VK2의 발화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발견되었다.

8) 이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이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름으로써 마치 친어머니와 딸의 관계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서로간의 약속에 의한 것이거나 한국어의 복잡한 호칭을 배우기가 어려워 남편이 사용하는 호칭을 그대로 따라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다’ 등의 서술어와 어휘적 높임말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상대경어법은 모두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문말어미의 사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복잡한 경어법의 체계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 그 결과는 김선정(2007)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특징 중의 하나인 ‘언어 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부족’으로 연결된다.<sup>9)</sup>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말어미 사용은 ‘해체’와 ‘해요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주 드물게 자녀에게 하는 말에서 ‘해라체’가 발견될 뿐이다. 이는 이희성(2009)이 제시한 한국어 교육용 상대 높임의 4등분 체계(‘해요체’와 ‘합쇼체’, ‘해라체’, ‘해체’)보다 더 간소화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대상에 따른 세 가지 경어법의 유형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1 주체 경어법

주체 경어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경어법이다. 연구 대상자들이 주체 경어법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대상은 시부모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11)</sup> 또한 주체가 문장의 주체가

9) 김선정(2007)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에 익숙하다.

둘째, 체류 기간이 긴 학습자일수록 읽기·쓰기에 관심을 보인다.

셋째, 언어예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넷째, 잘못 습득된 언어 표현이 많고, 이 표현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다섯째, 부정확한 발음이 많다.

여섯째, 실생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

일곱째, 문법에 대한 지식 없이도 바로 문장을 생성한다.

10) 이희성(2009)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은 모든 상대 높임법의 체계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하오체’나 ‘하계체’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희성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화자와 학습자들의 실제 담화 상황을 고려한 높임법의 체계를 교육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남편에게 ‘해요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남편에 대해

청자가 되는 경우는 상대 경어법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담화 자료에서 주체 경어법이 사용된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이중 16건이 잘못 사용되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들이 주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1)

a. VK2: 할머니 가 보자. 할머니 어디 있어? 가 보자. 할머니 어디 있어?

b. VK2: 할머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없네.

c. VK1: 선생님이 다 줘요.

d. VK1: 우리 베트남 가. 고생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했잖아.

e. VK1: 여기 엄마하고 우리 아빠 엄마하고 우리는 도왔어요? 하나도 안 도와줘. 근데 여기 엄마 많이 도와주잖아. 지금은 엄마 나이는 어떻게=

f. PK1: 목사님 뭐 그랬는데?

아이1: 그래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

PK1: 어제 말씀 안 외웠지?

아이1: 말씀 외웠.

(-중략-)

PK1: 왜 목사님 집에 가래?

a에서는 ‘있다’에 해당하는 어휘적 높임 ‘계시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b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c, d, e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각각 ‘주셨어요’, ‘고생하시잖아’, ‘도와주시잖아’로 표현해야 한다. e에서는 ‘나이’의 어휘적 높임 ‘연세’도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예문 f의 ‘그랬는데?’는 ‘그리셨는데?’로 ‘목사님 집에 가래?’는 ‘목사님 집에 가라시?’로 말해야 하지만 그런 점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 4.2.2 객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은 담화 상황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상황이 발생하지도

---

이야기할 때 주체 경어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의 경어법의 체계는 다소 자유로워진 경향이 있으므로 남편은 주체 경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않았으므로 실제로 이들이 객체 경어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객체 경어법이 사용된 4건의 발화에서 2건이 잘못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객체 경어법 사용에 미숙함을 보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객체 경어법이 잘못 사용된 경우이다.

(2)

- a. VK1: 우리 베트남 가. 고생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고생했잖아. 지금 나 안 도와줘서. 근데 ××이 내년에 좀 커서 어린이집 가서, 나도 일하고 그래야지. 왜 집에 있어? 집에 뭐 해?
- b. VK1: 여기 엄마하고 우리 아빠 엄마하고 우리는 도왔어요? 하나도 안 도와줘.

a와 b의 발화에서 나타난 ‘도와주다’는 해당하는 어휘적 높임이 존재하므로 ‘도와드리다’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연구 대상자의 발화에서는 그와 같은 사용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 4.2.3 상대 경어법

상대 경어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청자에 따라 문말어미의 선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에서는 ‘해체’와 ‘해요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시부모와 교사에게는 주로 ‘해요체’를 사용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발화 중 상대를 높여야 하는 발화 상황은 모두 34건인데 이중 17건에서 상대 경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와 어휘적 높임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자신을 낮추는 겸양칭 ‘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음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잘못된 상대 경어법 사용의 예이다.

(3)

- a. VK2: 내가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고춧가루 좀 너:
- b. VK1: 엄마, 저녁 먹었어요?
- c. VK2: ××아 얼른 먹어. 아파 병원 가야지. 안 가 아니야. 괜찮 괜찮아..

머리 많이 아파요?

시아버지: 자꾸 넘어갈라(넘어가려고) 캐(해).

VK2: 병원에 가세요.

d. CK1: 엄마 오늘도 고추 딸 거예요?

e. CK1: 엄마, 말린 거 토란 다 팔았어요?

f. 교사: 몇 시에 일어났어요?

CK1: 6시 일어나서 7시에 출발했어요. 보건소.

교사: 아!

CK1: 사람들 많아.

a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발화에서 일인칭 대명사 선택이 잘못된 경우이다. 한국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자신을 낮추는 말과 예삿말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때 ‘제가’라고 해야 한다. b는 ‘떡다’에 대응하는 어휘적 높임 ‘드시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며 c와 d, e는 각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에서 선어말 어미 ‘-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며 f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에서 반말에 해당하는 ‘해체’를 사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상대 경어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말끊어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었으며, 서술어 부분을 누락한 발화, 예를 들어 “아버지, 커피한 잔? 엄마는?”과 같은 발화도 있었다. 청자가 시부모임을 감안하면 상대 경어법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의 담화 상황에서 더러 반말인 ‘해체’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경어법의 사용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 4.3 지역어의 사용

‘지역어’는 김봉국(2009, p. 5)에 의하면 방언구획 또는 언어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지역의 언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대구 경북의 지역어라고 할 때는 이 지역 내의 언어 체계를 의미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휘나 형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보다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정(2007)은 이런 점을 간파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방언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근 들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안주호(2007)는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나 지방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에게 표준어만을 교육하거나 지역 방언을 무시하는 것은 의사소통 중심이라는 교육적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표준 한국어와 지역 방언의 조화로운 교수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주호(2007)는 대구 경북 지역의 방언을 음운과 어휘, 문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연구 대상자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지역어는 안주호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지는 않다.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지역어 정보는 오히려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고립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 내용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실제 담화 자료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담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역어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연구 대상자의 경우 더 많이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2)</sup> 핵가족에서 생활하는 연구 대상자의 발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어의 특성이 덜 나타난다.

#### 4.3.1 어휘

연구 대상자들의 지역어 어휘의 사용 빈도는 대화상대자들의 발화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구사하는 지역어 어휘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2)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CK1과 VK2의 발화에서 지역어가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어 사용 빈도에 관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지역어의 중요성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에서 지역어 사용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3〉 여성 결혼이민자의 담화에 나타나는 지역어 어휘

지역어	표준어	예
가마이	가만히	집에 가마이 있어야지.
꼬매다	깨매다	이거 꼬매야 돼.
뽑다	꽃다	선 뽑아.
돌아맹기다	돌아다니다	돌아맹긴다.
드가다	들어가다	드가지 마.
듣기다	들리다	우리 방 텔레비전 소리 듣기요?
뿔다	뿔다	안 보고 계속 뿔버.
마이	많이	아직 마이 있어요.
먹다	묵다	다 묵나, 응?
숨그다	심다	늦게 숨가서 아직=
얇다	널다	고춧가루 여:
우	위	저 우에는 아직 없어요?
일나다	일어나다	벌 아침에 일나고 양치질하고.
찌지다	지지다	찌지 맛 없어요.
카다	하다(-고 하다)	뭐라 카노?
클나다	큰일나다	이거 꼬매 놓은 거 벌어지면 클나다.
도 <sup>13)</sup>	줘	밥 도.
온나 <sup>14)</sup>	와	일찍 온나.

#### 4.3.2 문법

여성 결혼이민자의 발화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어의 문법적 특성이 나타나

- 13) ‘도’는 동사 ‘주다’의 ‘해체’ 명령형이다. 경상도 지역에서 평서문이나 의문문에서 ‘주다’는 ‘친구한테 줘.’, ‘너 줄까?’에서처럼 표준어와 차이가 없이 사용되며 ‘해요체’에서도 ‘누가 줘요?’와 같이 사용된다. ‘해체’의 명령형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수신자가 제3자일 때에는 ‘줘’가 사용되며 수신자가 화자 자신일 때에는 ‘도’가 사용된다. 즉, ‘도’는 ‘해체’의 명령문에서 수신자가 화자 자신일 때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이다.
- 14) ‘온나’는 동사 ‘오다’의 ‘해체’ 명령형에 고정된 표현으로, 다른 동사의 경우 이런 형태가 발견되지 않으며 ‘오다’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어휘의 부류에 포함시켰다.

는데 이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문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대구·경북 지역어의 어미가 이들의 발화에서도 나타난다. ‘해체’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노’,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나’가 사용되는데 ‘-나’의 사용에 비해 ‘-노’ 사용은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 CK2: 아들이, 오늘 숙제 많나?

CK2: 아, 우리 xx이 언제 친구 같이 목욕탕 가노?

이외에도 대구·경북 지역어에서 의문문은 독특한 체계가 있다. ‘해체’에서 ‘뭐’, ‘어디’, ‘언제’, ‘누구’ 등의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사+이다’ 구문으로 의문문을 구성할 때에는 어미 ‘-고’가 사용되어 ‘뭐고?’, ‘언제고?’ 등으로 의문문을 만든다. 또 ‘명사+이다’ 구문으로 의문문을 구성할 때에는 어미 ‘-가’를 사용한다.

예) CK1: 고집이 뭐꼬?<sup>15)</sup>

CK1: 어, 그거는 뭐 좋은 기가(거야)?

둘째, 동사의 과거형 관형사형 어미 ‘-(으)ㄴ’ 대신 ‘-았/었는’을 사용한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토박이 화자라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담화에서도 발견되는데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CK2의 발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다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아직은 이런 형태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복문 구조에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 CK2: 어제 배웠는 거 다 까먹었어.

CK2: 이거 엄마가 사왔는 거다.

15) ‘뭐꼬?’는 ‘뭐고?’의 변이형이다.

셋째, ‘ㅂ불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어에서 ‘ㅂ 불규칙’의 부재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사용 경향을 보인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담화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이 간혹 발견된다.

예) PK1: 더러버라.

CK2: 이 찌개는 매버서 먹기 힘들어.

넷째, 확인 의문문에 사용하는 어미 ‘-지’ 대신 ‘-재’가 사용된다. 이 형태는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연구 대상의 담화 자료에서 관찰되었다.

예) VK1: 잘 만들었재?

VK1: 맛있게 먹었재?

다섯째, 동사의 부사형 어미로 ‘-구로’ 사용된다. 이는 표준어의 ‘-게’, 혹은 ‘-도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법 형태는 한국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베트남 출신 학습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예) VK1: 뭐 먹구로 해 주까?

여섯째, ‘조건’의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어미 ‘-(으)면’ 대신 ‘-(으)마’가 사용된다. 이 또한 복문 구성에 능숙한 한국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연구 대상자의 담화 자료와 시부모와 동거하는 연구 대상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예) CK2: 빵구 나마 내가 숙제 못하잖아.

CK1: 나 혼자마 누워 있어.

일곱째, 동사 ‘먹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받침이 실현되지 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 받침 ‘ㄱ’ 음이 사라진다. 이런 점은 ‘먹다’의 지역어 어휘 ‘묵다’의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 CK1: 아버지 식사 드세요. 밥 무요.

여덟째, 의존명사 ‘것’에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이’는 구어에서 흔히 ‘게’의 축약형으로 사용된다. 이때 대구·경북 지역어에서는 ‘기’의 형태로 축약되어 사용된다.

예) CK2: 밀대랑 다른 기 뭘데?

아홉째, ‘순차’의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어미 ‘-아서/어서’ 대신 ‘-가’가 사용된다. 이 또한 복문 구성에 능숙한 한국 거주기간 10년 이상인 연구 대상자의 담화 자료와 시부모와 동거하는 연구 대상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예) CK1: 깨끗이 씻어가 무라.

CK2: 학교 앞에서 만나가 같이 왔데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어 사용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이 오래된 연구 대상자에게서 높은 사용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같은 지역 내 거주하는 학문목적 학습자나 일반목적 학습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어야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발화에서 지역어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력 자료의 영향과 말하기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상이 되는 호칭과 경어법, 지역어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담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결핍은 언어 예절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칫

인간관계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언어 규범에 대한 교육과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토대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에 따라 적절한 호칭 사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경어법의 등급 선택을 강조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담화 자료를 살펴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으로 ‘엄마’가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청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청자에게 수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친밀감의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예도 발견되는데, 이는 ‘엄마’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어법의 등급은 ‘해체’와 ‘해요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이희성(2009)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간소화된 체계이다.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상황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등급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청자 높임법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어미의 누락으로 반말처럼 들리는 표현과 ‘드시다’, ‘주무시다’, ‘진지’ 등 어휘적 높임이 가능한 어휘임에도 예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존대의 대상이 되는 담화 상대자와의 의사소통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이미 지역어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며 발화에서도 어휘나 문법 등 지역어적 특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므로 이들이 ‘저절로’ 지역어에 익숙해지고 지역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지역어를 교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마다 교육용 지역어 목록을 마련하여 수업을 통해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 참 고 문 헌

- 강현자. 한국어 호칭의 특성: 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와 문화』, 1(2), 201-218. 2005.
- 김봉국. 사회문화적 의사소통과 국어교육 ; 지역 방언과 국어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5, 65-86. 2009.
- 김선정. 『대구경북지역 이주여성 적응교육 중 한국어 교육 결과보고서』,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2006.
- 김선정.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2007.
- 박영순. 『한국어 의미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 박영순.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7.
- 박영순.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송경숙.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2.
- 송경숙. 『담화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안주호. 한국어 교육에서의 표준어와 지역방언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1, 143-165. 2007.
- 왕한석. 『또 다른 한국어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 교문사. 2007.
- 이익섭, 이상억, 채완.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문화사. 1997.
- 이희성.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조사 및 역할극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9.
- 장석진. 『화용론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5.
- 한원덕.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의사소통능력(CC)과 언어전략수행능력(CE) 연구. 『스페인어문학』, 23, 187-209. 2002.
- 허 용.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 Brown, G. & Yule, G.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Brown, H. D.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이홍수 외 공역), 서울: 교보문고 (원서출판 2000). 2007.
- Brown, R. & Ford, M. Address in American English.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234-244. 1964.
- Brown, R. & Gilman, A.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ebeok, T. A. (Eds.) *Style in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 253-276. 1960.

-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58. 1980.
- Fasold, R.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Instruction to Sociolinguistics*. (Vol. 2.). New York: Blackwell. 1990.
- Harris, Z.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Hwang, J. R.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41-55. 1990.
- Johnston, B. *Discourse Analysis*. Massachusetts: Blackwell. 2002.
- Lyons, J. *Semantics*. (Vol. 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Renkema, J. 담화연구의 기초, (이원표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서출판 1992). 2002.
- Schiffrin, D. *Discours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chiffrin, D. *Approach to Discours*. Massachusetts: Blackwell. 1994.
- Stubbs, M. 『담화분석 -자연언어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송영주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서출판 1983). 1993.
- Tannen, D.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1984.
- Van Dijk. T. A.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London: Longman. 1977.
- Widdowson, H. G.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ABSTRACT

An Analysis of Free Colloquial Discourse Produced by  
Female Marriage-immigrants: Focusing on Their  
Sociolinguistic Competence

Kim, Seon Jung & Kang, Hyun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linguistic competence of female marriage-immigrants through analyzing their free colloquial discourse. Because previous studies on female marriage-immigrants have not been performed based on the natural illocutionary data, an accurate diagnosis of their communication method will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education aimed at them,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cation ability. For this study, the colloquial discourse situation from five female marriage-immigrants from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as recorded.

The sociolinguistic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use of designation, respect terms, and regional words. ‘Eomma’ was used as a designation for their husband’s mother, which means that ‘intimacy’ worked for the designation of their husband’s mother. The respect-word classes for others were limited to the ‘haeyo’ form and the ‘hae’ one, and the reception for listeners was often discarded.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regional words was found in the vocabulary and grammar, and the more proficient the Korean language, the more frequent the regional word occurrence. Based on the above result,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for the immigrants shall be suggested as follows: the teaching has to focus on respect words positively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ounterpart.

---

**Key Words**

female marriage-immigrants, sociolinguistic competence, designation, respect words, regional words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언어학적 능력, 호칭, 존대어, 지역어

논문접수일: 2012. 02. 11.

심사완료일: 2012. 03. 14.

게재확정일: 2012. 03. 16.